

‘실천’하는 안전관리로 안심일터 구현

자동차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제동장치,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향장치, 노면으로부터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주는 완충장치는 엔진과 함께 자동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품이며, 탑승객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장치들이다. 이런 중요한 부품들을 제조·생산하는 국내 대표기업에는 (주)만도가 있다. (주)만도가 주저 없이 ‘국내 대표기업’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지난해 약 6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한국 자동차부품업계의 선두 자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굴지의 기업, (주)만도의 R&D 센터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광식 과장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안전이 곧 개인의 행복이며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근무하는 그를 만나 기업을 안심일터로 이끄는 비법을 들어봤다.

취재 책임진 기자 chae@safety.or.kr

(주)만도 총무팀/R&D센터 안전관리담당 안광식 과장



안전관리자,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주)만도가 지난 2012년에 신축될 때만 해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는 부재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듬해인 2013년, (주)만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그러던 중 지난 2월부터 건설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갖춘 안광식 과장이 (주)만도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이전에 연구소 시험장비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시설관리 업무와 안전업무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안광식 과장은 자진하여 지금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또 그가 안전관리에 나선 데에는 시험장비 및 설비인 국소배기장치나 수조탱크, 압력탱크 같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현재 새 장비가 반입돼 전기 및 설비시설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 정격용량의 케이블사용 및 위치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안전관리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예방활동을 하며 밝은 사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 및 연구활동 강화를 이끄는 회사의 숨은 일꾼”이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이어 “특별한 사명의식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 성취도와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점검 결과에 맞춘 후속조치 시행

(주)만도는 여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만큼

다양한 사고 위험요소도 산재돼 있다.

(주)만도의 연구소에서는 주로 부품의 성분검사 시험, 부식시험, 인양시험, 절단시험, 내구성시험, 납땀에 의한 조립, 변압기 성능시험 등 작업공정이 수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누출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기계·기구에 의한 상해사고, 시험장비 내 간힘에 의한 질식사고, 압력탱크 등의 폭발사고, 중량물 낙하로 인한 상해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에 안광식 과장은 매달 실시하는 전문 업체의 사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일, 담당자가 해야 할 일,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 등에 맞게 후속 조치 계획을 세워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전기·설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관리팀을 활용해 일일점검 및 안전순찰을 벌이고 있다. 순찰 결과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경영진 또는 안전보건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표준일일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실별로 책임자들이 일일점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용 안전점검표’를 작성·배포하기도 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집체교육으로 정기교육과 신규 채용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안전보건교육이나 기타제반여건이 미흡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이 현장 안전을 좌우

안광식 과장은 시설관리만으로는 무재해 현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 역시 안전한 사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키포인트라고 강조한다.

이에 그는 사내 건강관리실과 연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금연클리닉 시행, 건강 상담, 특수검진, 유소전자 사후관리, 신규 채용자 배치 전 검사 같은 보건관리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부서 내 소통창구인 ‘어깨동무’, 임원과의 소통을 위한 ‘Friday Lunch Time’도 운영하고 있다. 또 회사 내 설치된 안전게시판과 소통사이트에서도 안전관련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로 구성돼 있는 환경안전팀과 교육자료, 안전UCC 경연대회, 안전활동 등을 공유해 안전관리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안전, ‘실천’이 답이다

안광식 과장이 평소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실천’이다. 그는 “실천이란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안전관리에도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장비 및 시스템이 마련돼도 근로자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그는 “안전수칙은 관련 부서나 관련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위험요소는 제거하는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곧 실천에 옮기는 안광식 과장이 향후 안전관리자로서 펼쳐나가 고자 하는 ‘안전 포부’는 무엇일까.

그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신규 채용자 대상 교육, 산업안전위원회 개최, 현재 1대 보유하고 있는 제세동기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예산 획득, 응급 조치 교육, 화재대피훈련 시행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